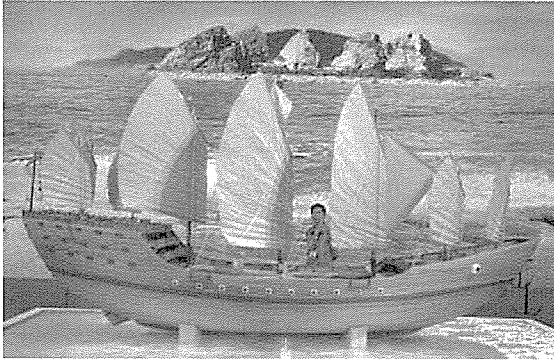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중국의 대항해자 '정화의 배와 항해'



콜럼버스가 발견한 곳은 아메리카대륙이 아닌 카리브해의 아이티 섬이었다?

콜럼버스는 평생 아메리카 본토에 상륙한 적이 없었다?

중국의 대항해자 정화(鄭和)가 1421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최근 아메리카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해양탐험가가 과연 콜럼버스인지, 정화인지를 놓고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명(明)대의 대항해자인 정화의 배와 항해관, 그리고 항적 등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학술적으로 조명한 '중국의 대항해자, 정화의 배와 항해'(허일, 김성준, 崔云峰 편역, 삼산출판사)가 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구나, 정화가 중국에서 600년만에 부활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출간돼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7월11일을 '정화의 서양(西洋) 대원정 600주년 기념일'로 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박물관은 7월6일 '대원정 전시회'의 막을 올렸다. 넉달간 지속된다. 정화 함대가 출항의 닻을 올

렸던 장쑤(江蘇)성 타이창(太倉)에선 '정화, 항해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중국의 7월은 '정화 열기'에 휩싸여 있다.

정화는 영락제(永樂帝)의 지시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수백 척의 선단을 지휘해 일곱 차례나 서양으로 항해를 떠났던 인물이다. 명대의 서양은 말라카 해협을 서쪽을 말한다. 항해의 목적은 '세상 끝의 국가도 조공을 바치게 하라'는 영락제의 지시에 의해서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영락제가 축출한 건문제(建文帝)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란 지적도 있다.

정화의 함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중동은 물론 멀리 아프리카까지 닿았다.

그러나 정화는 500년 가까이 중국인의 뇌리에서 잊혔었다. 권력 투쟁이 문제였다. 대항해는 환관인 정화가 주도했다. 그러나 정화를 총애했던 영락제 사후 유학자들은 환관 세력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수백 척의 함선 제조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은 대항해의 조공 무역으로 인해 국고가 탕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화의 항해 기록 대부분을 불살랐다. 잿더미로 변했던 정화를 20세기 초 다시 역사 속으로 불러낸 인물은 청말의 개혁가인 량치차오(梁啟超). 그는 갈가리 찢긴 청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며 중국인의 기상을 다시 세울 모델로 정화를 끌어냈다. 1980년대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바다로, 세계로 나아갔던 정화를 되살렸다. 그러나 일시적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맞아 정화열기는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시대의 상징적 인물로 정화가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정화의 배와 항해’ 책자 머릿글을 보면, 1992년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 500주년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인들은 영화를 제작하고, 콜럼버스의 기함 ‘산타마리아’ 호를 복제하여 그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등 서반구 전체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도착하여 활동했던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카리브해의 아이티 섬이었고, 그 자신이 오늘날 브라질 북부 해안에 잠시 상륙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아메리카 본토에는 발을 내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실사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카리브해에 도달하여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를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스텍, 마야, 잉카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문명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역사의 승자’인 서구인들의 자아도취 내지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발로라는 것이다.

콜럼버스와 다 가마를 필두로 한 유럽의 항해가들과 이들의 해양활동을 후원한 유럽 각국이 약탈과 착취를 자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보다 반세기 전 중국의 대항해자 정화는 수십 척의 배와 2만여 명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만을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하였다.

영국해군의 퇴역장교인 멘지스(Menzies)는 정화함대의 일부가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서해안을 항해하다 대서양을 횡단하여 카리브해까지 항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의 주

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이 충분치 않고, 또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 또한 만만치 않아 멘지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가 유럽 항해가들보다 80여년이나 앞서 인도양과 아프리카까지 항해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는 그가 첫 항해를 시작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화의 대항해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미야자키 마사카스(宮崎 正勝) 교수가 정리한 『정화의 남해대원정』(일빛, 1999)과 멘지스의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사계절, 2004)란 책이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멘지스는 정화의 항해사를 다소 도발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미야자키 교수는 정화의 항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화의 항해에 내포된 다양한 시각과 논점들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정화의 배와 항해’는 정화의 하서양 600주년을 기념하여 정화의 항해를 국내에 소개하되, 앞서 국내에서 발간된 두 권의 책과는 달리 좀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몇몇 연구서들을 검토하여 정화의 항해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들을 모아 정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나, 학술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정화 문제(1부), 정화의 배(2부), 정화의 항해(3부), 정화 항해의 영향(4부)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주제들을 몇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검토한 소논문들을 모아 엮다보니 불가피하게 중복된 부문도 있고, 정화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인도네시아, 인도, 페르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지명과 인명 등을 중국어식으로 표기한 점이 다소 흠이라면 흠이다.